

신체이미지 ·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태도적 ·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

宋京子* · 金在淑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Effects of the Body Image · Body Distortion and the Self-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s

Kyung-Ja Song* and Jae-Sook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based on the social comparison theory, were 1) to examine the body image and the body distortion of the late adolescent through the attitudinal and perceptual measurement of the body image and to examine the self-esteem, 2)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clothing behavi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body image, the body distortion and the self-esteem, 3)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clothing behavior, the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according to sex.

The sampling method was a convenient sampling and the subjects were 137 undergraduate students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actors to the response of attitudinal body image emerged three factors(appearance interest, weight concern, and body satisfaction).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response of the clothing behavior showed four factors(fashion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of clothing, conformity to clothing, and exhibitionism of clothing).

The positive group to the body image showed more interest in the fashion and had the tendency of depending on the clothing psychologically, and also showed that the group revealed much exhibitivie attitude by using the clothing.

The group of perceiving the face rather correctly tends to do the conformity behaviors, but the group distorting the shoulder width wider than tends to reveal more conformity behaviors.

The group with the higher self-esteem had little interested in the fashion and also did the conformity behaviors slightly.

Key word : attitudinal body image, perceptual body image, body distortion, self-esteem, clothing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의 기준은 시대·문화에 따라 변화를 하며, 여성의 경우 1500년대에는 다소 비만한 체형이 이상적이었으나 현대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마른 편이면서도 건강미가 있는 체형이 이상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왜곡되기 쉬우며 신체만족도 외에도 건강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외모·체형·체중의 변형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신체이미지 연구들은 신체만족도(Body Cathexis Scale)에 따른 신체이미지만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신체이미지 측정에 적합한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이용한 태도적 신체이미지 측정과 Image Marking Procedure법을 통해 시각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줄 수 있으므로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 왜곡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 동안에는 드라마틱한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20세를 전후해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비교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자아정체감이 완성되는 시기인 17~20세의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신체이미지의 태도적 측정과 시각적 측정을 통해 신체이미지와 신체 왜곡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을 알아본다. 둘째, 신체이미지와 신체왜곡,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을 알아본다. 셋째, 성별에 따른 신

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준 실험 설계에 의해 신체 사이즈를 실제 계측하고 지각된 사이즈와의 비교를 통해 왜곡 정도를 알아본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비교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 강화(feed back) 즉,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우리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ead, 1934; Goffman, 1959). 그러나 사회적 강화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는 사회적 비교이론이나 자아지각이론으로 개인의 정보선택에 필요한 통합된 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Festinger(1954)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는 것에 기초해 사회적 비교이론을 제안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지식의 중요 원천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비교는 자신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와 유사한 대상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며 비교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는 더욱 확고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그 사람의 태도가 변화되기 쉽다. 즉,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인 동료나 또래와의 비교를 쉽게 하게 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준거집단의 인정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또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어떤 이미지를 강요받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비교를 당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의 감정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며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말초적이고 시각적인 것이어서 사회적 비교가 손쉽게 일어나므로 이 이론은 자아존중감, 신체적 매력, 신체이미지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이미란,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신체이미지나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비교이론을 연구의 배경으로 선정하였다.

2. 신체이미지 · 신체왜곡과 의복행동

인간의 자아는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가 있으며 신체적 자아의 지각을 신체이미지라고 부른다.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일 뿐 아니라 성숙한 후에도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이다(강혜원, 1996). Schilder는 신체이미지를 “마음속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그림”으로 정의하였으며(Lewis 등, 1995, 재인용), Sumnerfield와 Rosen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 정의하였다(Huddy, 1993, 재인용). 신체이미지에는 체중 · 키와 같은 물리적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성별 · 연령 ·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지각적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신체사이즈 지각은 섭식장애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체사이즈의 왜곡된 지각은 섭식장애의 한 진단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나, 오늘날은 미의 기준이 변화되어 마른 체형이 이상형으로 뒀에 따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Jacobi 등(1994)의 연구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남 · 여 모두 자신의 실제 사이즈를 왜곡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와 이상적인 사이즈 간에도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보다 더 마르고 가볍고 큰 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MacGillivray(1997)는 청소년기를 초 · 중 · 후기로 나누고 각 집단별, 성별, 거주지별로 의복과 외모를 연구하였는데,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신체 외모에 불만족하였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을 표현하는데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동조·개성행동을 많이 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신체이미지의 중요구성

요인인 신체만족도로 조사되었는데 선행연구(구자명 등, 1994; 김양진, 1992)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신체사이즈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서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경복(1997)의 남 ·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신체만족은 의복관심과는 무관하고 의복만족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은 신체만족도에 상관없이 의복이나 유행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만족도도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동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Rosenberg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되며,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념이다(강혜원, 199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김순주 등, 1986; Humphrey 등, 1971). 진효정 등(1997)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의복에서는 동조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동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재(199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외관 및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란(1997)의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신체이미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의복행동에 있어서 동조(비개성)행동을 많이 하고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신체만족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기 확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의복에 좀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문제,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이미지·신체왜곡·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신체이미지·신체왜곡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성별에 따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청소년 후기집단이며, 피험자는 충남대학교의 1~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중 17~21세의 145명으로 1998년 6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Survey와 Quasi-experiment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방법으로 접근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태도적 신체이미지(16문항), 자아존중감(10문항), 의복행동 특성(20문

항)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총 46문항)와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위한 Image Marking Procedure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이미지

(1) 태도적인 측면 - Brown, Cash, Milulka (1990)의 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중 신체외모 관련 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후 1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2) 지각적인 측면 -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선행연구 결과 너비의 왜곡이 많았고 특히 얼굴폭을 과대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Keeton 등, 1990; Brodie 등, 1994; Smith 등, 1994) 얼굴폭과 어깨너비를 조사하였다. Askevold의 Image Marking Procedure법(Kaiser, 1990)으로 자신의 얼굴폭과 어깨너비를 전지에 표시하게 한 후, 마틴계측기(측각계, 간상계)를 이용해 실제 계측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자아존중감

Miran Yang(1997)의 논문에 사용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의복행동 특성

의복행동중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 선행연구들에서 신체만족,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된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을 선행연구(고애란 등, 1986; 김미영, 1983; 김규봉, 1986; 이부희, 1996; 이영륜, 1981; 정미실, 1991)에서 많이 쓰인 10문항씩을 발췌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5문항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류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준거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논의하였으며, 본 조사에 사용된 각 측정도구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가 .64~.80 사이에 존재하므로 본 측정도구는 신뢰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n=137)

측정 도구		Cronbach's α
신체이미지	외모관심(7문항)	.80
	체중관심(4문항)	.78
	신체만족(5문항)	.65
자아존중감		.77
의복행동	유행관심(5문항)	.80
	심리적의복의존성(5문항)	.77
	동조성(5문항)	.71
	과시성(5문항)	.64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AS PC+통계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검증을 위한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요인도출을 위한 요인분석, 도출된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이원변량분석, 성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얼굴과 어깨 각각의 왜곡 %를 알아보았으며, 체중·키의 비율로 계산되는 신체충실지수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태도적 신체이미지, 의복행동의 요인도출

1)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요인도출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적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표 2>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3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49%이었다.

요인 1은 '외모관심'으로 명명되었고 2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체중관심(비만우려)'로 명명되었고 1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신체만족'으로 명명되었고 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는 신체적 매력이 없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점수가 클수록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얼굴이나 머리를 자주 손질하며 몸치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비만을 우려해 식사조절이나 절식을 하며 체중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신체만족 요인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의복행동 요인도출

의복행동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부적절한 한 문항을 제외하고 <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4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53%이었다.

요인 1은 '유행관심' 요인으로 2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가 하고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으로 13%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동조성' 요인으로 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나는 항상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과시성' 요인으로 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입어서 멋있게 보이는 옷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점수가 클수록 유행관심 요인에서는 패션잡지나 유행에 관한 기사를 관심 있게 보며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에서는 의복으로 기분전환을 하며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하고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며 입어서 기분 좋은 옷을 자주 입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조성 요인에서는 친구들과 비슷한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하고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 것으로, 과시성요인에서는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표 2>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 외모관심			
나는 얼굴, 머리를 위한 화장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7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72		
나는 머리손질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다.	.69		
나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62		
나는 외출하기 전에 몸치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58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핀다.	.54		
항상 멋있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51		
요인 2 : 체중관심 (바만 우려)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5	
나는 절식 혹은 단식 등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		.76	
나는 체중감소를 위한 식사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다.		.73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72	
요인 3 : 신체만족			
나는 신체적 매력에 없다.			.74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잘 생겼다고 보는 것 같다.			.62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57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신체를 좋아한다.			.55
고 유 근 (Eigen value)	3.92	2.56	1.36
신뢰도	.80	.78	.65
설명력(%)	25	16	8

멋있고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1)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태도적 신체이미지 점수에 따라 집단을 셋으로 구분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신체이미지에 따라서 의복행동의 내 요인중 유행관심(F=11.31, p<.001), 심리적 의복의존성(F=7.25, p<.001), 과시성

(F=7.1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행관심 요인에서는 신체이미지 점수가 높은 집단이 중간집단이나 낮은 집단보다 유행에 관심이 많아 패션잡지나 신문 등의 패션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며,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 있게 보며 실제로 사지 않으면서도 자주 옷을 둘러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복의존성 요인에서는 신체이미지가 낮은 집단이 높거나 중간 집단보다 의복에 심리적으로 덜 의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복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즉, 신체이미지 점수가 중간 이상인 집단이 의복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기분전환을 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며 옷으로 다른 사람의 관

<표 3> 의복행동의 구성요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1: 유행관심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가 하고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빠짐없이 읽는다. 나는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나는 상점에서 실제로 살 계획이 없으면서도 자주 옷을 둘러본다.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86			
요인 2: 심리적 의복 의존성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나는 그 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다.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나는 어떤 모임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다. 나는 새 옷을 입은 날은 기분 좋은 생활을 한다.		.75		
요인 3: 동조성 나는 항상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옷을 입었을 때 더욱 그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만약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마련해서 입으려고 한다. 나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품질의 옷을 선택하고 싶다.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76	
요인 4: 과시성 입어서 멋있게 보이는 옷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산다.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드는 옷이 좋다.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76
고유근 (Eigen value)	4.49	2.46	1.68	1.45
신뢰도	.80	.77	.71	.64
설명력(%)	25	13	8	7

심을 끌기를 바라고 그 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심리적으로 의복에 좀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성 요인에서는 신체이미지 점수가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인 집단보다 의복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복을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가, 또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드는가가 더욱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의복에도 만족한다는 이희남(1985), 김인경(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2)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1) 신체부위 계속결과

신체부위 중 얼굴과 어깨너비를 계속한 결과는

<표 4>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137, df=3)

의복행동	신체이미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F Value
	유행관심	평균(M)	0.59	-0.19	
	Duncan	A	B	B	
심리적 의복의존성	평균(M)	0.33	0.07	-0.42	7.25***
	Duncan	A	A	B	
동조성	평균(M)	-0.02	0.02	-0.02	0.04
과시성	평균(M)	0.42	-0.06	-0.28	7.11**
	Duncan	A	B	B	

** p<.01, *** p<.001

Duncan Test 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표 5> 계측결과 (n=137)

신체부위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얼굴왜곡(%)	10	19
어깨왜곡(%)	-1.8	-5.5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남자는 자신의 얼굴을 10% 크게 왜곡하여 지각한데 반해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19% 크게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구자명 등(1994), 김양진(1992), 임경복(1997), MacGillivray(1997) 등의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면, 어깨지각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어깨너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했다.

Röhrer지수는 (체중/신장³)×10⁷으로 구해지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Röhrer지수가 남자는 122, 여자는 123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체형의 범위가 140·109임을 고려할 때 남·녀의 평균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 비만하거나 여윈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6> 신체총실지수 (n=137)

	남자 평균	여자 평균
키(cm)	174.5	161
체중(kg)	65.1	51.2
Röhrer지수	122	123

(2)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① 얼굴 왜곡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지각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얼굴 왜곡 정도에 따라 실제보다 크게 지각한 집단,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한 집단, 실제보다 작게 지각한 집단으로 나누어 이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얼굴왜곡에 따라서는 의복행동중 동조성(F=3.65,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얼굴을 실제보다 더 작게 지각한 사람이 동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얼굴을 작게 지각한 것은 최근 작은 얼굴이 선호됨을 고려할 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동조행동보다는 개성행동을 많이 하게

<표 7> 얼굴 왜곡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137, df=3)

의복행동	왜곡 정도		크게 왜곡	비왜곡	작게 왜곡	F Value
	평균(M)					
유행관심	평균(M)		0.09	-0.07	-0.49	1.43
심리적 의복 의존성	평균(M)		0.07	-0.11	0.09	0.64
동조성	평균(M)		-0.10	0.21	-0.60	3.65*
	Duncan		AB	A	B	
과시성	평균(M)		-0.02	-0.02	0.46	0.93

* p<.05

Duncan Test 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 의존성, 과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연령층에서는 체형과 상관없이 유행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은 신체만족도에 상관없이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다는 임경복(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② 어깨너비 왜곡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어깨너비 왜곡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깨너비 왜곡 정도에 따라 집단을 셋으로 구분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깨왜곡에 따라서는 의복행동중 동조성(F=0.06,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깨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집단이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충실지수로 보아 전체의 8%만이 비만형이었고, 92%는 정상범위에 있었으나 정상범위에 있는 집단 내에서도 신체이미지 점수는 동일하지 않고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타인과의 비교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며,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라 집단을 셋으로 구분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은 유행관심(F=4.16, p<.05), 동조성(F=6.3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중간인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집단은 유행관심이 적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하므로 의복에서도 개성적인 의복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중간집단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동조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진효정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시 하는 의복행동을 하게 되므로 동료나 친구들과 비슷한 옷차림보다는 개성있는 옷차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의 차이

가설 3의 검증을 위하여 피험자의 성별에 따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표 8>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137, df=3)

의복행동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F Value
	평균(M)	-0.35	0.17	0.02	
유행관심	Duncan	B	A	AB	4.16*
	평균(M)	0.03	0.08	-0.23	
심리적 의복 의존성	Duncan	B	A	A	6.32**
	평균(M)	-0.42	0.10	0.25	
동조성	평균(M)	0.05	0.04	-0.16	
과시성	평균(M)				

* p<.05, ** p<.01

Duncan Test 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표 9> 성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차이 (n=137)

	성별	평균	T값
외모관심	남	20.94	0.50 ^{N.S.}
	녀	20.58	
체중관심	남	8.30	-4.79***
	녀	10.88	
신체만족	남	6.46	3.17**
	녀	5.70	

** p<.01, *** p<.001, N.S. not significant

1)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는 체중관심(t=-4.79, p<.001), 신체만족(t=3.17, p<.01)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에 관심이 많아 비판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자명 등(1994), 김양진(1992), 임경복(1997), MacGillivray(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지각적 신체이미지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얼굴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작은 얼굴이 선호됨을 고려해 보면 여자

가 자신의 얼굴에 더욱 불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점수의 수치는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진(199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고려해 보면 피험자들이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대부분 1학년이므로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별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예전과 달리 여자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표 10>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n=137)

	성별	평균	T값
자아존중감	남	34.63	1.36 ^{N.S.}
	녀	33.52	

N.S. not significant

<표 11>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n=137)

성별 \ 의복행동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
남	-0.29.	-0.17	-0.04	0.13
녀	0.31	0.12	0.05	-0.13
T 값	-4.13***	-1.59 ^{N.S.}	-0.60 ^{N.S.}	1.84 ^{N.S.}

*** p<.001, N.S. not significant

성별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는 유행관심 요인($t = -4.13$, $p < .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경복(1997)의 연구에서 여성은 신체만족도에 상관없이 의복이나 유행관심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의복행동 요인 중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청소년기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의복에 관심이 높고, 의복을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준거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의복동조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배경으로 사춘기 후기 집단인 17~2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하였으며, 신체이미지는 태도적인 면과 지각적인 면으로 나누어 조사해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은 survey 방법과 quasi-experiment 방법을 병행하여 접근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이미지는 요인분석결과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의 3개 요인이, 의복행동은 유행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의복행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의복행동중 유행관심은 성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행관심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유행관심이 낮았으며,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은 유행관심도 높았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신체이미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동조성은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동조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굴을 실제보다 작게 지각한 사람이 동조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성은 신체이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시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신체이미지에서는 체중관심과 신체만족요인에서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가 체중관심이 많고 자신의 신체에는 남자보다 더욱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적 신체이미지 조사에서 자신의 얼굴 크기를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일치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에서는 유행관심요인만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의복의존성, 동조성, 과시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의복행동에서는 비만한 사람이 유행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이미지·신체왜

꼭과 자아존중감은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 피험자들의 신체충실지수는 대체로 보통범위에 있었으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은 동일하지 않고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동료나 준거집단내의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의 비교는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사회적 비교이론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신체이미지를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치를 포함시켜 신체왜곡 정도까지도 연구하였다는 점이며, 이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 선정과정에서 대학생집단을 편의 표집하였다는 것이므로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 고애란, 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 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pp. 667-681, 1996.
- 구자명, 이명환,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 153-163, 1994.
- 김순구, 윤학자,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연구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pp. 305-313, 1990.
-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pp. 197-209, 1992.
- 삼정은, 고애란,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 1997.
- 임경복,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2), pp. 195-205, 1997.
- 차진희,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성 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Brodie, D. A., Bagley, K., and Slade, P. D. Body-image perception in pre-and post-adolescent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pp. 147-154, 1994.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pp. 135-144, 1990.
- Folk, L., Penersen, J., & Cullari, S., Body satisfaction and self- concept of third and sixth grade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pp. 547-553, 1993.
- Huddy, D. C., Nieman, D. C., and Johnson, R. L.,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percent body fat among college male varsity athletes and nonathlet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7, pp. 851-857, 1993.
- Jacobi, L. and Cash, T. F.,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 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pp. 379-396, 1994.
-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th ed). New York: Macmillan, 1990.
- MacGillivray, M. S., and Wilson, J. D.,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pp. 43-50, 1997.
- Lewis, R. N. and Scannell, E. D., Relationship of body image and creative dance move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1, pp. 155-160, 1995.
- Miran Yang Lee, B. A.,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A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1997.
- Smith, D. E. and Cogswell, C.,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adolescent girls'body perception I,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pp. 744-746, 1994.